

여성차별철폐조약
제 7 회 및 제 8 회 일본정부보고 대표단장 모두 발언(가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조약 제 7 회 및 제 8 회 일본정부보고에 대한 심사에 즈음하여 일본정부대표단을 대표하여 전세계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하여 매일 열심히 활동하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하야시 요코 위원이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일본으로서도 동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공헌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철폐 및 남녀공동참여 실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위원회와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1985 년 비준으로부터 30 년간, 일본은 여성차별철폐조약을 하나의 중요한 근거로 고용, 교육,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남녀공동 참여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아베총리가 ‘모든 여성이 빛나는 사회’의 실현을 표명한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남녀공동참여 및 여성의 활약을 추진하는 노력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본 조약에 관한 일본의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

먼저 일본의 남녀공동참여행정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남녀공동참여행정은 1999 년에 제정된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남녀공동참여를 ‘남녀가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보되며, 그것으로 남녀가 균등하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으며 또한 함께 책임을 짊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서는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의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이념의 하나는 ‘남녀의 개인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것, 남녀가 성별에 따라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는 것, 남녀가 개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차별적 취급’이라 는 것은 그 행위를 받는 편에 주목하고 있으며, 차별의 의도 유무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동법은 ‘사회의 제도 또는 관행에 대한 배려’까지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제도 또는 관행’은 성별에 인한 고정적인 역할분담 등을 반영하여, 결과로서 남녀의 사회에서의 활동 선택에 대해서 편향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동법은 ‘남녀의 사회에서의 활동 선택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중립적인 것으로 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은 국가에 대해서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 촉진에 관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하는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책에는 적극적 개선 조치가 포함되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은 동법에 따라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및 평등을 누릴 권리를 존중·보호·충족하는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제 4 차기본계획】

여기에서 최신의 노력과 관련하여 작년 말에 새롭게 책정한 제 4 차 남녀공동참여계획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에는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에 의거한 남녀공동참여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방향과 구체적인 노력을 정한 것으로 작년 12 월에 제 4 차 계획을 각의에서 결정했습니다.

또한 본 계획 책정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중시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활발한 논의 외에 3,616 건의 의견 제출을 받고 전국 6 개소에서 881 명의 분들에게서 참가해 주신 공청회 등으로 인해 보다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취합하였습니다.

○계획의 개요

본 계획에서는 첫 번째로 여성이 활약하는데 있어서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 방식이 선택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장시간 근무나 전근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남성중심의 근무 방식 등을 전제로 하는 노동관행 등을 개혁하는 것, 두 번째로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채용·등용의 추진 또는 장래 지도적 지위로 성장해 나갈 인재의 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할 것, 세 번째로 곤란한 상황에 놓인 여성의 실정에 맞는 세심한 지원 등으로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것, 네 번째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1 개의 성과목표를 내걸고 내각관방장관을 의장으로 하여 관계각료와 전문가로 이루어진 남녀공동참여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여성의 참여 확대

아베내각에서는 2012 년 12 월 출범이래 ‘여성활약’ 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규정하고 포지티브 액션(적극적 개선 조치) 등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성과 목표 중에서도 특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성의 참여 확대 목표입니다. 제 3 차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제 4 차기본계획 그 자체가 골·앤드·타임테이블(goal and timetable)방식의 포지티브 액션으로 기능합니다. 그 결과 최근에 국가, 지방공공단체, 민간기업의 관리직 등을 차지하는 여성 비율의 증가율은 모두 높아졌으며 여성의 취업률도 상승하는 등 사회전반에서 여성의 활약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전체에서의 움직임을 더욱 가속시키고자 제 4 차 기본계획에서는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 참여확대를 위하여 분야별로 모든 노력을 하면 달성 가능한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에 더하여 장래 지도적 위치로 성장해 나갈 인재풀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등용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5 년간 가장 주력해야 할 점은 여성에 대한 연수를 확충하고

직무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착실히 인재 층을 두텁게 해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관행의 변혁

그리고 장시간 노동이나 전근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노동 관행을 변혁하는 것도 큰 줄기입니다.

기업의 노력을 촉구하는 인센티브로 공공조달에 있어서 워크·라이프·밸런스 등을 추진하는 기업을 보다 폭넓게 평가하는 틀을 도입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 6개월까지는 실수령액 80%의 수입이 확보되는 육아휴직급부제도의 실시 등으로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2013년부터 5년간 50만명분의 보육 수용 시설을 확대하고 대기 아동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첫 번째로 간병 이직의 방지를 위한 간병 휴업의 분할 취득과 시간외 노동의 면제, 두 번째로 임신·출산, 육아 휴업 등을 이유로 취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임신부 차별(maternity harassment)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 강화책, 세 번째로 유기계약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취득하기 쉽게 하는 제도, 이 3항목을 담은 법률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속한 성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영업 등의 여성이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제 1호 피보험자】의 산전산후 기간의 보험료 부담면제를 위한 제도의 재검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하면서 안심하고 육아나 간병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성활동추진법】

의장님, 포지티브 액션(적극적 개선 조치)에 관해서도 작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여성의 활약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작년 8월에 여성활약추진법이 성립되었고 올해 4월부터 완전하게 시행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고용에서의 남녀차별은 금지되어 있으며 각 기업의 독자적인 포지티브 액션(적극적 개선 조치)은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이 법률로 국가·지방공공단체, 대기업에 여성의 채용·등용의 상황 등을 독자적으로 파악·분석하고, 또한 수치목표를 내건 행동계획을 책정하여 정보의 공표를 의무화하여 지금까지 이상으로 심화된 포지티브 액션(적극적 개선 조치)의 제도가 되었습니다. 각 기업에서 남녀별 근속연수와 관리직 비율 등을 파악하고 노력하는 것이 여성관리직의 증가, 그 결과로서 남녀간 임금격차의 해소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을 실효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법률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팜플렛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업의 여성 활약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각 방면에서 평가를 받는 제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포지티브 액션(적극적 개선 조치)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착실히 진행함으로써 직장생활에서 활약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시키도록 계속하여 전력을 다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중점 방침】

의장님, 여성의 활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정에 남녀공동참여의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여성활동 가속을 위한 중점 방침’을 책정하였습니다. 본 방침은 앞으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 시책을 6월까지 수립하여 8월말에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등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방침에 입각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의 여성활약추진시책은 인적인 면에서나 예산적인 면에서도 보다 충실해짐으로써 여성 활약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의 ‘여성 활약 가속을 위한 중점방침 2015’는 각 분야에서의 정책·방침 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외에 여성에 대한 모든 괴롭힘(harassment)의 근절, 한부모 가정 등의 곤란한 상황에 놓인 여성의 실정에 맞춘 세심한 지원,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근절 등 여성활약을 위한 기반이 되는 시책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제면에서의 진전】

또한 이러한 국내 시책에 더하여 일본정부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국제적인 공헌에 있어서도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대표적인 유엔기관이 UN Women에 대한 지원은 5년전에 비교하여 작년에는 엔을 기준으로 75배 증가했습니다.

제 68회 유엔총회에서 일본은 ‘여성이 빛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2015년까지의 3년간에 30억달러가 넘는 ODA를 실시한다고 표명하고 착실히 실시해 왔습니다. 2015년 2월에는 일본의 ODA의 이념 등을 제시하는 정책 문서인 ODA 대강을 12년만에 재검토하고 여성 참여 촉진을 원칙의 하나로 내건 개발협력대강을 책정하였습니다.

올해 G7 의장국으로서 젠더의 주류화를 명확하게 내걸고 5월의 이세시마 서밋에서 교육을 비롯한 옴파워먼트에 빛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본은 20여년 전에 아프리카의 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TICAD를 출범시켰으며, 올해 6번째를 맞이하는 TICAD가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개최됩니다. TICAD VI에서는 아프리카가 추진하는 “아젠다 2063”을 지원하며 보건 시스템의 재구축이나 포괄적인 교육, 여성의 옴파워먼트 등의 사회개발에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일본정부는 세계에서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2014년부터 두 번 연속해서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위한 국제심포지움(WAW!)’를 개최하고, 작년에는 42개국, 8개 국제기구의 여성분야 등에서 활약하는 145명의 리더들이 참가했습니다. WAW!에서는 ‘여성과 경제’와 ‘글로벌 과제’라는 2대 주제하에서 여성을 둘러싼 여러 과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참가자들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성과 문서 ‘WAW! To Do 2015’에 정리하고 유엔문서로도 발표하였습니다.

여성과 평화·안전보장을 연관시킨 첫 안보리결의 제 1325호의 이행을 위해 일본도 작년 9월에 ‘행동계획’을 책정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분쟁하의 여성의 참여·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행동계획’의 책정·실시로 계속해서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총리의 10X10X10에의 선출】

의장님,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남성의 참여(commitment)입니다.

UN Women 이 He for She 캠페인에서 ‘여성활약을 톱다운으로 추진하는 10 인의 남성 정상’의 한명’으로 아베 총리를 선출하였듯이 일본에서는 총리가 앞장서서 여성활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 대신에 남성을 임명한 것도 이러한 결과입니다. 재작년 6 월에는 일본의 유명한 기업의 남성 총수가 여성의 활약을 응원하는 ‘빛나는 여성의 활약을 가속하는 남성리더의 모임 행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육아하는 남성을 의미하는 ‘이쿠멘(IKUMEN)’ 그리고 부하의 워크·라이프·밸런스를 생각해 그 사람의 경력과 인생을 응원하면서 조직의 업적에서도 결과를 내게 하는 상사를 의미하는 ‘이쿠보스(IKUBOSS)’를 늘리는 노력을 하며, 앞으로도 여성도 남성도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해나갈 것입니다.

【위안부문제】

긴 세월에 걸쳐서 일한양국간의 현안 사항이었던 위안부문제에 관해서는 작년 12 월 28 일에 일한 외상 회담이 개최되어, 본 문제는 양국간에서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양국이 각각 합의 내용을 성실히 실행에 옮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20 세기 전시하에서 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깊은 상처를 입은 과거를 마음에 새기고, 21 세기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상처받는 일이 없는 세기로 만들기 위해 리드해 나가자 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한마디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여성차별철폐조약은 일본이 동 조약을 체결(1985 년) 하기 이전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동 조약의 실시 상황 보고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비준 30 주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작년 일본은 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30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기회에 여성차별철폐조약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내각부에서는 하이다 위원 및 하야시 요코 위원장을 초청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많은 시민이 참가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앞으로도 남녀공동참여 및 여성 활약 추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여성차별철폐조약에 관한 오늘의 중요한 심사에서 일본정부대표단은 위원 여러분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뜻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